

# “지역 발전 내가 책임.. 교육 위해 열정 바치겠다”

광주시장·전남지사, 광주시·전남도 교육감 후보들 마지막 호소

※교육감 후보는 선관위 투표용지 최초 후보배치 순서

## 광주시장 후보

### 광주발전 위해 여당시장 필요

#### 새누리당 이정재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선거운동기간 중 많은 시민들을 만났다.

만나는 시민들마다 광주의 새로운 변화를 바랐다. 광주 발전을 위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광주는 대전에도 밀리는 그저 그런 도시로 전락했다.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는 도시가 됐다.

민중당 일당독점으로, 민선 지방자치 20년 광주가 달라졌는지 묻고 싶다.

그런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계파 간 주도권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이제 당을 보고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후보의 도덕성과 가치관, 열정, 비전을 보고 투표해야 한다.



### 시장을 바꾸면 광주가 바뀝니다

#### 새정치연합 윤장현

광주의 변화, 시민의 시대

대를 열겠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향후 4년을 좌우한다. 아니 10년, 20년, 우리의 삶,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광주가 변하려면 시장이 바뀌어야 한다.

관료의 전성시대, 이른바 ‘관피아’의 시대를 우리 광주도 끝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시민이 광주 시민이다. 광주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광주를 바꾸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광주의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을 바꿀 새로운 광주의 역사, 여러분의 손으로 꼭 만들어 주길 바란다.

평생을 광주에서 봉사하고 헌신으로 살아온 저 윤장현이 앞장서겠다. 시민 여러분 사랑한다.



## 광주시교육감 후보

### 광주 미래위해 ‘창조형 교육감’ 택해야

#### 양형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광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교육감 선거 일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변명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후보를 선택해 광주교육의 위기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새 리더십과 새 교육을 펼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위기를 해결하고 발전을 기약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실력 향상과 효율적인 인성교육은 물론 ‘진짜 친환경 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하고, 무상 등·하교, 무상 방과후학교를 실천하겠다.

주어진 재원과 인력만을 관리하는 ‘관리형 교육감’이 아닌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국가직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창조형 교육감’이 선출돼야 한다.



### 광주교육 자존심 회복 하겠다

#### 윤봉근

이번 교육감선거에

대한 광주교육의 관심은 3가지다. 첫째, 소통이 없는 불통 교육, 믿음이 없는 불신 교육,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 교육의 ‘3불 교육’이다.

둘째, 아이들이 실력있는 학생, 인성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셋째, 교육의 현장에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갈등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광주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은 새로운 교육감을 요구하고 있다. 현 광주교육청에 대한 시민적 아픔과 원망을 보듬어 광주교육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겠다.



### 거대 야당·기득권 세력 심판을

#### 통합진보당 윤민호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시민들은 지금 광주를 제 안방처럼 생각하는 새정치연합에 배신감을 쏟아내고 있다.

막대기 공천으로 광주를 무시한 거대 야당과 광주를 부끄럽게 해온 기득권 구태세력을 심판해달라.

통합진보당 아직 작고 부족하다. 그러나 불의에 굽히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노동자·농민·중소상인·서민을 위해 일해왔다.

무엇보다 지난 8년 동안 통합진보당 의원들 성실하고 반듯하게 일했다.

이것 광주에서 거대 야당의 싸늘이를 막고 견제세력을 키워줘야 한다. 이제 광주도 제대로 된 경쟁이 필요하다.



### 노동자·서민 헌신할 후보에 한표를

#### 노동당 이병훈

광주시장은 전략공천 눈

란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노동자 서민의 삶을 위해 헌신할 후보가 누구인지를 두고 선택해야 한다.

그동안 정치권은 재벌과 권력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는 것 보다는 당장의 비용 절감을 위해 모든 사회구조를 기업의 이윤 중심으로 법, 제도를 바꾸어 규제완화,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세월호 참사는 이런 사회구조의 아방성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제 평등, 평화, 인권 등 다양한 가치들이 기업의 이윤에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 분열·갈등 극복 통합형 교육감 필요

#### 김왕복

김왕복이 교육감이 되면

무능한 초보교육감이 물러나고 유능한 교육정책·재정전문가의 리더십으로 안정되고 신뢰도 높은 광주교육이 시작된다.

전교조와 비전교조, 보수와 진보를 두루 아우르는 통합형 대안교육감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겠다.

선대위원장인 고영을 전 예비후보와 함께 사교육비 없애는 으뜸 공교육을 실현하겠다. 또 ‘아름다운 동행’을 선언한 윤봉근 후보의 ‘인성교육’을 학교현장에 뿌리내리겠다. 학교협동조합을 제도화해 자율과 평등의 교육공동체 시대를 활짝 열겠다. 결식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아침밥 무상급식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 학생인권과 학생안전은 교육감직을 걸고 지켜내겠다.



### 공개수업정책으로 공교육 살리겠다

#### 김영수

타 후보와 차별화된 정책으로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수업공개정책은 무너진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 문제 해결 정책이다. 수업내용을 학교·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면 학생들은 복습의 기회가 되고, 교사들은 공유해 전국 최고의 교수법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교사들의 수준 높은 교수법은 의욕이 넘치고 활기찬 교실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 교권은 살아나고 학생 인권은 저절로 지켜질 것이다. 교육의 근본적 문제 해결방법은 교실에 있다.

선심성 무상정책의 난무는 세습폭탄으로 이어져 학부모들을 2층고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



### 광주시민 민중역량 보여 달라

#### 무소속 강운태

한없이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마침내 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함을 보여줄 선거일이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의 부당한 밀실야합 공천에 항거해 그 부당성을 시민계 호소했고, 시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이용섭 후보와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루었다.

이번 선거는 밀실공천 후보 대신민공천 후보, 경험 없는 후보 대 일 잘하는 후보의 대결이다. 지난 4년간 오직 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일해 온 저에게 광주를 반석에 올려 놓을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 기호 5번 무소속 강운태를 망설이지 말고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깨어있는 광주시민의 민중역량을 보여주길 바란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



### ‘시민 시장’으로 광주 전설 만들겠다

#### 무소속 이병완

이제 결단의 시간이다.

그동안 자세히 지켜보셨을 것이다. 누가 광주를 부끄럽게 하고, 누가 광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진정으로 광주를 빛나게 할 후보인지 살펴보셨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비서관부터 비서실장까지 국정인 모든 분야를 함께했다. 고향에 내려와 구의원으로 일하며 서민의 삶과 애환, 행정의 실핏줄을 배우고 경험했다.

이제 진정한 ‘시민의 시장’으로 그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리고 4년 후엔 ‘젊은 광주’를 물려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물려주는 ‘광주의 전설’을 만들겠다. 여러분의 결단이 광주를 바꿀 수 있다.



### ■ 광주시 유권자 현황

전체	1,138,418	연령별	인원
남성	556,005	29세 이하	219,855
여성	582,413	30~39세	231,198
		40~49세	259,337
		50~59세	208,955
		60~69세	116,276
		70세 이상	102,797



### 미래지향 교육 전문가가 말아야

#### 장휘국

지난 4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교육희망의 길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정립과 혁신교육, 보편적 교육복지의 소중한 가치들이 훼손되고 폄하되는 것을 지켜봤다. 참으로 안타까웠다. 이 같은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내야 한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교육희망의 길 위에 모두 함께 모여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활차게 비상할 때다.

교육은 정치논리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 교육전문가가 교육을 맡아야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행복한 미래지향의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다.

6월4일, 참교육 인성 40년의 교육전문가 장휘국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란다.



## 전남지사 후보

### 전남 경제 살릴 후보 선택해 달라

#### 새누리당 이중호

지난 수십년간 전남을

장악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에 묻지마 지지를 해주는 것은 오히려 전남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한 집안에 한 명이라도 기호 1번 이중호를 찍어야 전남의 미래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전남의 재정자립도, 인구 유출, 채무 증가, 복지, 안전, F1과 여수박람회 사후문제 등 산적해 있는 전남 과제들은 경제를 살려야 해결된다.

이를 위해서라도 집권당 새누리당과 소통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중호를 선택해 달라. 이번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며 그동안 만들어온 공약들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



### 도민 생명과 안전, 행복한 삶에 최선

#### 새정치연합 이낙연

6·4지방선거는 무능한

현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자.

세월호 참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참사현장에서 단 한 명의 생명도 구출하지 못한 정부로 인해 큰 슬픔과 함께 깊은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다.

이런 무능한 정부는 사실상 존립의 근거를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역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한 삶을 최우선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그러한 책무를 다할 인물을 가려내는 데 의미가 있다. 제대로 준비한 지도자, 변화와 혁신을 이룩할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 실천적 경험으로 농어촌교육 살릴 것

#### 김동철

선거운동을 마감 하면서

우리는 선거라는 교실에서 세월호를 주제로 수업 중이라 생각하며 교육자로서 의병운동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수업준비를 마쳤다.

말과 행동이 다른 지도층 인사들의 무책임이 야말로 교육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암덩어리라고 생각한다. 이를 방지하면 우리 사회는 세월호의 승객과 유병 안 일가로 양분되는 운명에 처할 수도 있었다는 위기를 느껴 마지막 수업안을 준비했다.

전남교육의 사활이 걸린 농어촌교육 문제를 실천적 경험에서 우려난 공약을 제시했다. 앞으로 4년간 선생노릇을 더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도민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다.



### 원칙 바로 선 전남교육 만들겠다

#### 김경택

전남교육의 올바른 길을

위한 고민에 함께 공감하고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전남교육이 열악한 여건을 딛고 학생들의 끼와 적성을 한껏 펼칠 수 있는 ‘따뜻한’ 교육 정책을 내걸고 힘껏 걸었다. 부모덕과 겉치레에 도취된 채 갈 길을 잃은 전남교육의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한 길도 제시했다.

지금은 도덕적이고 원칙이 바로 선 새로운 교육감이 필요하다. 전남 교육을 이끌 리더로 북돋워 기본에 충실해 온 김경택을 선택할 때가 되었다. 절대로 부패한 교육 권력에 굴복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선택, 결코 포기하지 말고 꼭 투표하길 당부드린다.



### 노동자·농민 살맛나는 전남 만들겠다

#### 통합진보당 이성수

아이들이 죽어갈 때 박근혜

정권과 야합해 각종 악법을 통과시키며 사상 최대의 관세야당이 돼버린 새정치연합으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할 수 없고 호남의 민심을 대변할 수도 없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새정치연합에 실망한 도민의 민심이 통합진보당으로 모아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전남에서부터 젊은 도지사 이성수를 선택해 주고 진짜 야당 통합진보당으로 야당을 교체해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의 디딤돌을 놓아 달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 노동자·농민·어민·서민이 살맛나는 전남을 위해 도민이 손과 발이 돼 성심을 다바쳐 일하겠다.



### ■ 전남 유권자 현황

전체	1,549,440	연령별	인원
남성	766,272	29세 이하	228,416
여성	783,168	30~39세	231,760
		40~49세	298,782
		50~59세	301,347
		60~69세	210,678
		70세 이상	278,457



### 전남 미래위해 봉사하는 인재 키울 것

#### 장만재

소중한 전남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필요하듯, 전남도민 여러분에게도 꿈과 희망이 필요하다. 전남의 꿈과 희망은 교육에 있다.

전남의 미래를 물음 때마다 저는 교육과 애환을 말하곤 한다. 인구가 줄어들고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 우리 전남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길은, 전남 출신의 인재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것뿐이다.

애환심으로 지역에 봉사하는 인재 키우는 방법뿐이다. 교육감은 그런 인재 키우는 책임자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전남의 미래를 위해 교육감 선거에 꼭 투표해주기를 바란다.

